

① 개요

선을안판관제주판관본은 조천읍 선흘리 안씨 댁의 조상신에 대한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선흘리 안씨 집안에서 부군을 조상으로 모신 덕에 대대로 벼슬을 하였는데 제주판관을 할 당시 굿을 하면서 벼슬이 작다고 탄식하자 조상이 서운해 하며 고씨 심방을 따라가버렸다.

② 내용

안동(安東)에서 삼형제가 제주도로 들어와 한라산에 올랐다. 농사를 지으며 살기로 하고 선흘리 이데기머들에 이르러 각자 살 곳을 정하였다. 첫째는 납읍리, 둘째는 가시리로 가기로 하고, 막내는 선흘리에 머물기로 하였다.

삼형제는 베남^ム를 큰 바위에서 귀는 주걱이요, 몸은 돌무더기인 부군(富君)을 만났다. 부군은 첫째와 둘째가 웃옷을 벗어 맞이하려 하였으나 거들떠 보지 않고, 막내가 웃옷을 벗어 맞이하니 옷 안으로 들어왔다. 삼형제가 부군을 동백나무 아래 좌정시키고 모시니, 대대손손 벼슬이 나왔다.

자손 가운데 제주판관(濟州判官)이 나오니, 성내(城內)에서 고씨 심방을 청해 굿을 하였다. 굿을 하는 도중 안판관(安判官)이 겨우 판관벼슬을 있다고 탄식하였다. 부군은 이를 듣고 서운해 하면서 심방을 따라가기로 하였다. 소미는 ?으니^ム를에 이르자 상안체가 무거워진 것을 이상하게 여겨 풀어보니 청만주에미가 들어 있었다. 고씨 심방은 안씨댁 조상이 따라온 것을 알고 큰굿을 하니, 이후에 고동지(高同知), 고첨지(高僉知), 별장(別將) 벼슬을 하였다.

③ 특징

조상신이 자신을 홀대하자 굿하던 심방을 따라가 그 집안의 조상신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고대장본풀이에서도 나타난다. 일부는 칠성본풀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언급된다. 다만, 조상이 떠났다고 하는 전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판관 집안에서 전

승하는 본풀이에 이를 언급하는 점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조상이 떠났으니 더 이상 조상이 없는 셈이기 때문이다.

④ 핵심어

안동, 삼형제, 선흘리, 이데기머들, 납읍리, 가시리, 베남^모를, 주걱, 돌무더기, 부군, 제주판관, 성내, 고씨 심방, 그으니^모를, 소미, 상안체, 청만주에미, 큰굿, 고동지, 고첨지, 별장

⑤ 원전 서지사항

선을안판관제주판관본(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⑥ 관련 자료